



•—————•
통그라미재단(구 안철수재단) 연례보고서
•—————•

동그라미재단(구 안철수재단) 연례보고서

CIRCLE STORY 2013

발행일: 2014년 3월 29일

발행인: 성광체

발행처: (재)동그라미재단 (구 안철수재단)

135-7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나래빌딩 3층

Tel. 02 3470 3600 Fax. 02 3470 3601

Website: www.thecircle.or.kr

Email: contact@thecircle.or.kr

Facebook: www.facebook.com/thecirclefoundation

기획: 김소리, 김정민

진행·편집: 김정민

인쇄: 동인AP

복디자인: 소셜크리에이티브

C I R

C L E

S T O

R Y 2013

All rights reserved.

©2014 The Circle Foundation.

ISSN 2288-9393 01

*이 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재)동그라미재단으로 문의해주세요.

동그라미재단(구 안철수재단) 연례보고서

차례
Contents



06

격려사 /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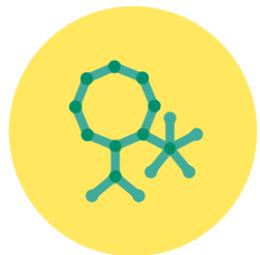
35

임팩트스폰



45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07

동그라미재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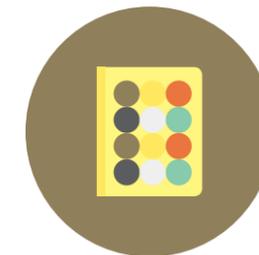
13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73

동그라미재단 살림살이



76

맺음말



격려사 / 인사말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임팩트스폰,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지난해 동그라미재단이 일구어낸 일과 꿈의 첫발입니다.

이 터전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회와 가능성이 싹을 틔웠습니다.
혁신적인 공익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모의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지역사회의 기업이 더욱 건강하게 자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회와 나눔의 선순환이 성장의 속도를 서서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재단이 만들어낸 변화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일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동그라미재단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소중한 터전으로 드넓게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동그라미재단 출연자
안철수 드림

Dr. Ahn
안 철 수

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성광제입니다.

2012년 4월 30일, 동그라미재단이 설립되어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안철수재단에서 동그라미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했고,
파트너와의 협력과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서울 역삼동에 사무국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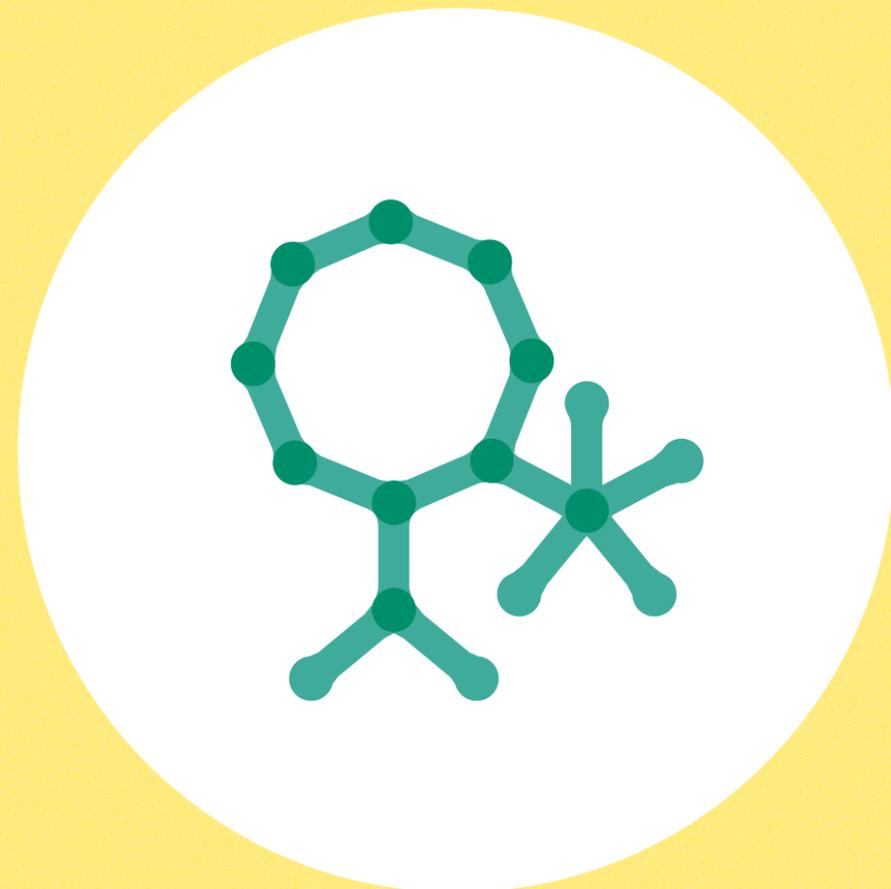
동그라미재단은 '포용력 있는 동그라미'로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
꿈과 도전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나눔의 선순환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13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동그라미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파트너들과 함께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나누려 합니다.
걸음마를 하는 아기와 같이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울곧게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성광제 드림

성 광 제



동그라미재단 소개

The Circle Foundation

동그라미재단의 지향

Mission



모두에게 기회를!

동그라미재단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믿음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Vision



변화의 시작, 기회와 나눔의 네트워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선한 이들과 협력해 창의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Core Values



투명성

동그라미재단의 활동과 자금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나눔의 문화를 만들고 신뢰를 얻어나가겠습니다.



창의성

고정관념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더 좋은 방법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실행하겠습니다.



상호존중

나눔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재단이 후원하는 단체와 개인은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즐거움

나눔은 즐겁고 행복한 과정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문제는 심각할지라도, 함께 나누어 가는 과정에는 큰 보람과 충만함이 존재합니다.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동그라미재단이 걸어온 길

2012

- 03. 안철수재단 창립총회
- 04. 주무관청(중소기업청) 재단법인 설립 허가

2013

- 03. 안철수재단, '동그라미재단'으로 명칭 변경
- 04. 교육지원사업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공모
- 06.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14개 단체 선정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킷오프
- 08. 창업지원사업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공모 및 호남, 경상, 대구, 충청, 경기 사업설명회 소셜공모플랫폼 <임팩트스폰> 오픈 동그라미재단 사무국 이전(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09.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1차 공유회
- 10.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7개 기업 선정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2차 공유회
- 11.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킷오프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3차 공유회
- 12.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선정기업 진단 및 멘토링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4차 공유회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1차 리더십 및 조직역량 강화교육



동그라미재단과 함께 하는 사람들

성광제 이사장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상식이 통하고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꿈꾸며...”

김영 이사

(주)사이넥스 대표이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회의 나눔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연수 이사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모두가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나눠드리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최성호 이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꿈과 기회를 나누는 새로운 길! 사회와 세계로 열어 나가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김소라 이사

동그라미재단 사무국장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장범식 감사

송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교육기회가 보장되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묵 감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모두가 모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수평적인 재단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동그라미재단 사무국 공간 소개

2013년 8월, 동그라미재단은 재단 파트너 및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분들의 원활한 행사·교육 진행과 만남을 위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간은 모두의 홀, 변화의 방, 나눔의 방, 기회의 방, 그리고 재단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홀

모두의 홀은 '모두에게 기회를'이란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행사 및 강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120명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무대와 사회자, 조명, 프로젝터, 음향장비가 마련되어 있으며 셀 프바 이용이 가능합니다.





변화의 방

변화의 방은 함께 모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나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교육을 위한 음향장비와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으며, 30명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방

나눔의 방은 회의 및 교육장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15~2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고, 음향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회의 방

기회의 방은 동그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동그란 테이블과 벽면의 나무 프린트가 이 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8~10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Finding 'ㄱ' Project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대해

왜 Why 시작했는지?

청소년 진로교육이 교육계의 화두입니다. 정부에서도 각 학교에 진로지도 전담 교사를 두거나, 정규 교과과정에 진로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리회사와 비영리기구들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은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직업과 직업인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진로를 정하게 하는 것을 진로교육이라고 합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아내는 것도 진로교육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일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하겠다는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말합니다.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고자 합니다.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이란 자신만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겠다는 용기와 결심, 당장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는 현실적인 실천력, 그리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와 불굴의 의지력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를 통하여 자신의 꿈이 곧 자신의 일이 되는, ‘꿈=일’이라는 공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What 하고자 하는지?

기업가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젝트들의 실행과 확산을 지원합니다.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과정

어떻게 How 해 왔는지?

2013년 첫 공모를 통해 126개의 프로젝트들이 접수되었고, 최종 14개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지역 중심의 직업체험현장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문화예술을 통해 자존감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프로젝트,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직접 내는 프로젝트, 청소년과 적정기술을 연계한 프로젝트, 사회적기업과 청소년을 연계한 프로젝트, 시각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직업탐색 교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등,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공통점을 가진 14개의 프로젝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정기적인 공유회를 통해 서로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ㄱ’을 Story 찾아가는 이야기

2013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산해가는 과정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자원들이 모이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해줄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기업가정신교육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결과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그 변화의 시작부터 차근차근 함께 하고자 합니다.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단체 이야기

최종 선정단체

주제 구분	단체명	프로젝트명
자아발견과 자존감 형성	기억발전소	꿈꾸는 기억조각보
	스텝	STEPx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와 새로운 관점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드림나눔 커뮤니티 구축사업
	위즈돔	위즈돔@마이스쿨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	시각장애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프로젝트
문제발견과 문제해결	적정기술미래포럼	청소년 적정기술 프로젝트
	베네프트	BIT for Teens
실행 중심의 프로젝트 (Learning by doing)	인액터스코리아	인액터스 주니어
	J.U.C 페스티벌 사무국	청소년 인턴프로젝트
	행복한교육실천모임	2013 두런두런 앙트러프러너십
기업과 비즈니스의 이해	이그나잇스파크	Jr. Camp Spark
	유스바람개비	청소년 소셜앙트러프러너십센터
	JA KOREA	동네방네
	전국청소년창업협회	전국 청소년 창업포럼

꿈꾸는 기억조각보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꿈꾸는 기억 조각보는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들고 무력해질 때가 있으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과 꿈의 크기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곧 자신의 힘이라는 생각 아래 관계 맺음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마음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스토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지금까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해 왔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남다른 것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열어주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학교와 가족이라는 시스템 이외에 마음을 내어놓고 의지할 곳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금천구의 9개 중학교에서 어렵게 추천받은 참가자 15명 중 첫 날 9명이 출석했다가 둘째 날 4명으로 줄었을 때의 충격과 경악! 의욕상실과 자책을 넘나들며 참석한 4명의 아이들과 '우리 넷이서'라는 노래를 만들었을 때의 기쁨도 기억납니다. 진행되며 점점 팀워크가 완전해지던 느낌과 투덜거리면서도 끝까지 함께한 아이들, 마지막 수업을 할 무렵에는 자신들의 일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의지해주었던 일 등... 기억에 남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과 열정, 그리고 숨 고르기입니다.



STEPx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STEPx는 청소년이 직접 연사가 되어 자신의 꿈과 도전의 스토리를 동료 청소년들에게 공유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강연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과 진로를 위해 벤치마킹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명인사보다 이미 자신의 꿈을 찾아 활동하고 있는 동료청소년들이 더 많은 정보와 공감의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STEPx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STEPx가 2회까지 진행되고 학생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얻기 시작하자, 많은 청소년들이 연사로 신청을 하거나 문의를 해왔습니다. STEPx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STEPx 1회 연사들의 경우 고3이 대부분이었는데, 수시전형이 끝나고 연사들끼리 모여 사회기부행사, 멘토링 모임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많이 감명받았습니다. 자기주도성과 방향성이 확보된 청소년들에게 여유와 자원이라는 무기가 주어진다면 엄청난 파급력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정신에는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이 기업가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STEPx는 청소년들이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시도해보고 느낄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드림나눔 커뮤니티 구축사업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드림나눔 커뮤니티 구축 사업은 교육청 및 학교 중심의 진로교육을 현장중심으로 유도하여 지역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현장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성을 가진 기업과 현장의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구조화를 위해 협력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장에 대한 참여 학교의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차년도 사업계획 시 직업체험현장을 반영한 일정조정 등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교의 열린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로정보를 통해 자신의 진로목표를 다시 설계하고, 성취동기를 강화하는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참여 학생 중 말을 하지 않아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여학생이 본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라디오 방송을 구상하고 직접 방송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일반 청소년과 이를 모니터링 했던 학교(신림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평소 말이 없던 청소년의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랐으며 해당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재능을 가꾸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즈돔@마이스쿨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위즈돔@마이스쿨은 학생들이 직접 만나고 싶은 멘토를 위즈돔 사이트를 통해 선택하고, 만남을 요청 받은 다양한 직업인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진로 멘토링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그러한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알맞은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실제 직업인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깨달으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할 줄 아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미처 관심 영역을 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 더 많은 직업인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로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영감을 얻기 얻기를 바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멘토링이 끝난 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멘토와 지속적인 교류를 원한다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멘토들 역시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며 이러한 멘토링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받게 되는 도전을 기꺼이 수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프로젝트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시각장애로 인해 진로탐색과 직업선택 기회가 제한된 시각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분야에 도전해 자기 진로를 찾고 진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청소년용 진로직업탐색 워크북의 개발 및 보급과 시각장애중고생 진로캠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전국 12개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진로교육 교사 대상으로 워크북 보급 및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각장애 중고생들이 참여하는 진로 캠프도 진행했습니다. 캠프를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안 보이니까 이 직업은 안 돼"에서, "안 보여서 생기는 직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학생들이 더 이상 일부 직업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 도전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에피소드

캠프 강사로 참여한 일반학교 영어교사 최유림(전맹)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 성대모사가 뛰어난 한 친구가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 흉내를 내어 상급학년 맵신 선배들을 벌 세웠던 추억을 이야기 하자,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 학생들만이 겪을 수 있는 애환이자 추억일 것입니다.

기업가정신이란?

자신과 공동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도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로 인한 직업적 장벽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사고를 갖기 위해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장애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적정기술 프로젝트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의 분석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가 결합된 융합적 사고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인간중심 문제해결 기법을 배우고, 실천을 통해 문제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인간중심 문제해결 방법의 적용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역량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성모여고에 1차 멘토링을 갔을 때 55명의 학생이 모여 있어서 처음에는 동원된 학생들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10개 팀이 끝까지 남아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일반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발휘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BIT for Teens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선한 의도를 위대한 혁신으로'라는 미션을 가진 ㈜베네핏은 사회문제를 좀 더 쉽고 체계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베네핏 이노베이션 툴킷(Benefit Innovation Toolkit)과 이를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인 BIT For teens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BIT For teens는 청소년들이 문제인식을 통해 사회를 되돌아보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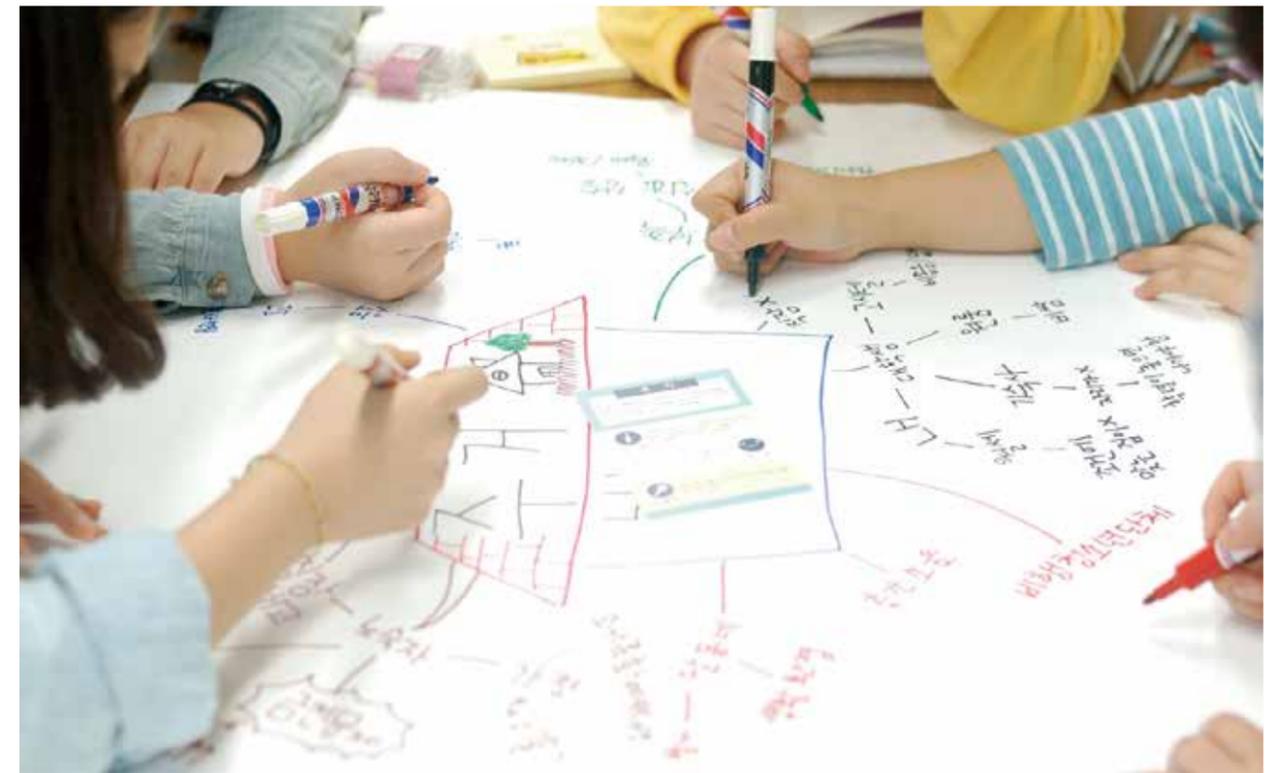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에 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알게 되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감명을 받아 자신만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사고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8시간 동안 진행되는 인텐시브한 코스임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있는 집중력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120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30개의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에피소드

전라남도 광주 워크샵에서 한 팀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지역감정'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의 지역감정을 청소년들도 겪고 있으며, 다른 사회문제보다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어떤 비즈니스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 궁금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전라도 청소년과, 경상도 청소년이 만드는 매거진 비즈니스였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적인 문화와 생활을 소개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정신이란 사회에 필요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업가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와 시스템을 변화시킬 확장가능성 있는 영향력에 대한 고민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액터스 주니어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인액터스 주니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인액터스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실천하고 가치관 및 자아 형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시켜주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액터스 주니어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인액터스 활동을 이어나가, 고등학교 - 대학생 - 사회를 잇는 견고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주니어 프로그램의 비전입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저희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니깐 '우리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인액터스 주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들은 교실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인액터스 주니어를 경험한 고등학생

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업가정신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에피소드

주니어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인액터스 팀(대학교)들이 원하는 인근 고등학교를 매칭하여 선정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꼭 참여하고 싶다는 열정을 보여 의정부, 대전에서 먼 길을 오가며 프로젝트 현장을 경험한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강한 열정을 보면서 고등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더 많이 열어줘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인액터스는 우리 모두가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견한 기회를 끊임없는 도전과 깊은 고민을 통해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인턴프로젝트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광주광역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과 진로교육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인턴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기업의 현장을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특정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업(사회적기업, 스타트업 회사, 청소년 단체)의 실무자와 함께 6~8주간 이론과 기업 실무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청소년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교육 종료 후, 팀 별 사업아이템 논의를 위해 완도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회혁신'이란 주제로 보드게임을 통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밤을 새며 열의를 불태워 사업아이템을 논의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저희는 끝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는 것을 기업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좌절과 실패가 꿈과 목표를 향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2013 두런두런 앙트러프러너십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두런두런 앙트러프러너십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행동을 통해(Do) 배우는(Learn)'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무작정 "꿈을 꾸라"고 하는 것이 아닌 꿈을 실현시킬 방법을 직접 행동하며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공정무역 진흥, 우산커버 재활용 및 재사용, 우리나라 역사지식 고취, 형광색 차선 페인트 적용을 목적으로 한 최종 4팀이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를 자발적으로 실행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두런두런을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참여 학생이 또 다른 자신의 친구에게 기업가정신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최종 진출한 4팀 중 공정무역 커피와 초콜릿을 알리고, 판매하는 '단비'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광화문 광장을 통째로 대관하고 부스설치 및 음향장비 설치까지 스스로 진행해 4시간 동안 6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플래시몹을 하고, 퀴즈, 게임,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정신'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어떠한 가치들을 창출하기 위해 사는지 고민하고, 이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행동양식이 기업가정신이라 믿습니다.



Jr. Camp Spark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Jr. Camp Spark'는 창업이나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이해, 문제발견과 해결, 고객과 시장, 수익과 비용, 비즈니스의 위험과 대응방안을 스스로 정의하게 합니다. 이후 해결책을 찾아보는 강연과 워크샵 및 멘토링이 결합된 '체험형 기업가정신 고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모의 경영게임 도구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려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SeedSpark'와 경영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해피타운'을 준비, 개발하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부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선생님들과 해당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필요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의 내용들을 담은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에피소드

경영시뮬레이션 게임인 '해피타운' 테스트에 함께한 참가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학생들이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강의 중심의 교육을 비즈쿨이나 기타 경진대회에서나 들을 수 있으며, 게임과 같은 참여형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리가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의 초기 생각들을 갖도록 만드는데 무척 유용할 것이며, 빨리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 도전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헌신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신념, 도전의 자세로 개인이나 팀 혹은 커뮤니티에 가치 있을만한 일에 몰입하고, 그 일의 성과와 결과에서 배우려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소셜앙트러프러너십센터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유스바람개비는 청소년 사회적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청소년 소셜 앙트러프러너십센터' 운영으로 청소년 소셜벤처 커뮤니티 조성, 진로코디네이터 양성 및 교재개발, 마을(지역사회) 자원 활용 진로체험 인프라 시범모델을 구축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 소셜벤처 커뮤니티 조성, 진로코디네이터를 양성 및 교재 개발, 마을(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 인프라 시범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으며,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자존감 증진 및 진로에 대한 시야가 확대되었습니다.

에피소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중 현 촉구화를 기부 받고 밀착을 갈아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공급하는 '촉구밀착같이' 아이템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라 높은 심사평을 받았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타인에 대한 신뢰, 상호 간 협력,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네방네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서울 및 수도권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JA Company Program' 과 <JA Be Entrepreneurial> 교재개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시장경제와 기업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팀워크·기획·재정관리·책임감·실행력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관계형성, 문제해결력과 협동, 자발성과 창의성 부분에서 참가자들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과 지역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지금은 자신과는 다른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멘토들과 유대감이 높아지면서 프로젝트와 별개로 진로에 대해 상담을 하고 함께 고민하는 등, 학생들은 훌륭한 '조력자'를 만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참여 학생들에게 "동네방네 프로그램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받았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꿈-호텔리어라는 꿈에서 '경영진'이라는 또 다른 꿈을 만들게 해준 프로그램" "양파-까도 까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런데 과정에서 눈물이 좀..." "마른 짬에 부싯돌-우리에게 불붙일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불을 붙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기업가정신이란?

모험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직무만 수행하는 수동적인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의 일환입니다. 실제 창업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향후 직장 생활을 할 때 고용자와 조직을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 청소년 창업포럼

프로젝트 소개와 시작한 이유

'전국 청소년 창업포럼'은 창업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 열기가 점점 뜨거워짐에 따라 청소년들도 창업을 꿈꾸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업 인프라는 대학생에게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고, 스스로 실패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못하고,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한계가 생기는 등 청소년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전국청소년창업협회가 생기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던 중 동그라미재단의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에게 창업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방법론을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협회가 홍보하지 않아도 창업이라는 분야에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창업

을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에피소드

프로젝트의 메인 프로그램인 '전국청소년창업포럼'의 첫 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날짜 조정을 3번이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청소년에게 행사를 제공하려다 보니 날짜 변경이 좀 잦았습니다. 50명의 학생들과 함께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기업가정신이란?

위험성이 존재하는 일에 겁먹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과 굳이 창업이라는 분야만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기업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함께하며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우리는 활짝 웃는 얼굴과 활기찬 움직임 대신 학원차에 실려가는 피곤한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치열한 입시경쟁과 갈수록 증가하는 청년실업의 현실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 집을 오가며 성적에 매달려 살아가거나, '성적포기자=인생포기자'라는 공식 속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미래를 꿈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오직 대학진학과 취업이라는 틀 안에서만 미래를 그리도록 재단해, 세상의 변화 속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경험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은 입시준비생으로 키워진 아이들에게 더욱 암울한 미래를 제공할 뿐입니다.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불과 20년 만에 우리의 일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중공업, 제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우리에게 지식은 기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과감히 도전해 변화를 창조하는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필요 속에 정부도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기업가의 역할과 역량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가는 세상의 문제를 효율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은 조직의 성격이나 개인의 지위에 상관없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업가적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창업이라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맘껏 상상해보고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가정신을 단련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재단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희망 만들기

동그라미재단은 청소년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과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젝트의 연구·개발·실행을 지원하는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들이 장학사업 위주로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도와주는 기업가정신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는 데 차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을 희망하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기술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을 '대안적 진로를 모색하고 실행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능력'으로 확장시켜 다수의 학생들이 미래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현 사회에 대비와 같은 이유는 진로교육의 강화와 창조경제의 부각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적절히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업가정신교육콘텐츠들이 발굴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만든 교육콘텐츠와 프로젝트 진행으로 얻은 경험과 노하우들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만들어갈 미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유난히도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성적표의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과성적뿐 아니라 다양한 진로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제공되는 흐름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가운데 동그라미재단이 진행한 공모사업은 변화의 흐름을 더욱 꽃피울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키워낸 변화의 씨앗들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전해져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2회, 3회로 이어져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렇게 발굴된 프로젝트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그들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도전과 변화의 시작
오이씨





임팩트스푼

Impactspoon



‘세상을 바꾸는 임팩트’

- 임팩트스푼(www.impactspoon.org)

임팩트스푼은 ‘IT와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나눔 문화의 확산’이라는 미션으로 진행된 동그라미재단의 첫 번째 온라인플랫폼사업입니다.

2013년 8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해 다양한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260여건의 사회변화를 위한 소셜프로젝트와 아이디어가 모였습니다.

2013

0801

베타서비스 시작

260

여 건의 소셜프로젝트&아이디어



임팩트스푼 주요 공모

변화를 위한



소셜 공모 플랫폼

임팩트스푼은 누구나 사회 변화를 위한 소셜 공모를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공모는 특정 단체(기업, 재단 등)만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팩트스푼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제시하고, 공모를 개설, 프로젝트 혹은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직접 선정,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참여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임팩트스푼을 운영 중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소통 공간

임팩트스푼은 사회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모이는 온라인 소통 공간입니다.

자신이 가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의 아이디어’를 소셜이노베이터들과 함께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변화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능동적인 소통이 가능한 곳입니다.



인컴피알재단

비영리 단체 PR/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 공모



인컴피알재단은 공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PR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잘 전달되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프로젝트 중 PR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전 공모에 비해 2배 이상의, 질적으로도 우수한 프로젝트 응모가 접수되었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앞으로 1년간 지원받게 되며, 공모 이후의 프로젝트 지원 소식들도 임팩트스폰을 통해 계속 전달될 예정입니다.

희망제작소

온갖문제매거진 프로젝트 공모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온갖문제매거진 프로젝트'는 우리를 둘러싼 일상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변화의 대안을 찾고, 이를 문화 예술의 형태로 공유하는 시민들의 연구작업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와 이후의 연구/실험 과정이 임팩트스폰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직업을 가진 부모님의 아들딸로 살아가는 법', '왜 사람들은 변덕을 부릴까?', '왜 만나서 놀 때마다 술일까?' 등 주위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글이나 영상, 그림, 대담 등으로 결과물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인액터스코리아

프로젝트 공모



인액터스(Enactus: Entrepreneurial. Action. Us.)는 기업가정신의 실천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학생, 교육인(지도교수), 기업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인액터스코리아 국내 대회를 위해 전국 31개 대학 팀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임팩트스폰에 등록하고 프로젝트의 자세한 정보와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우투컴퍼니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서울 아이디어 공모



하우투컴퍼니에서 진행한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서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IT기술의 접목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와 아시아 각 도시들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행사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소셜벤처들을 발굴·지원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사회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접수와, 이후의 행사소식들이 임팩트스폰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마다 개발자팀이 구성되어 2박3일 동안 구현하는 해커톤(해킹+마라톤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 서비스나 기능을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방식을 뜻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벤처파트너스서울



제2회 SVPS 투자/협력처 모집

소셜벤처파트너스서울은 비즈니스 사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40여 명의 개인, 기업이 출자금(기부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공모를 통해 사회적인 기업에 투자·협력합니다. 금전 지원뿐 아니라 모든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투자하여 사회혁신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2012년에 1팀을 선발하고 지원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임팩트스펀을 통해 총 3팀을 선발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온파운데이션

공감프로젝트 공모



스토리온파운데이션은 20~30대의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을 기부해 공감프로젝트 기금을 조성한 후, 공모를 통해 갈등의 벽을 넘어 소통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매월 1건씩 선정하여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기부하기 위해 재단을 창구로 이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부자와 지원자가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와 즐거운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동그라미재단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공모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을 위해 동그라미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청소년이 '일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프로젝트의 연구·개발·실행을 지원합니다. 공모를 통해 청소년 컨퍼런스, 교육 톨킷 개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의 14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이들의 소개와 활동내용이 임팩트스펀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PR/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 공모

인컴피알재단



인컴PR재단은 비영리 공익단체의 커뮤니케이션과 PR을 지원하는 미션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공익단체에 PR 전문가가 도움을 드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고객이 그 물건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소용 없듯이, 공익단체 역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더라도 공감해주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지지자들이 없으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2002년 인컴PR재단 설립 이후 지난 10여 년간, PR과 커뮤니케이션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공익단체를 꾸준히 도와왔습니다.

개 단체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PR과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아 선정에 애를 먹었고 지원대상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목소리들에 저와 같은 실무자가 난처할 지경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작은것이 아름답다' 팀의 '재생종이 캠페인 및 '작은것이 아름답다' 브랜드 재점점 프로젝트'입니다.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지난 18년 동안 꾸준히 재생종이 운동과 생태환경문화운동을 펼쳐왔으며, 그동안 한결같이 재생종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발간과 재생종이로 만든 책 출간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PR과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통해 날개를 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종이를 사용하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올 한해 인컴PR재단은 '작은것이 아름답다' 팀과 함께 재생종이 초등학교 교과서 발간과 기업·관광서 재생복사지 사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동그라미재단이라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 2014년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PR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함께 일할 비영리 공익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재단에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많은 공익단체의 사업이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재단의 사명이 PR과 커뮤니케이션 지원에 특화된 것인 만큼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과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PR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기에는 아직 사업 자체의 추진력이 부족하거나 그 성과가 무르익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우리 재단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역량이 충분한 단체도 있습니다.

공모의 원활한 진행 외에 임팩트스펀을 통해 얻은 통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익 단체들이 PR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부분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응모한 단체들의 필요사항을 보면서 이후 우리 재단의 사업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팩트스펀에서 진행되는 여러 공모와, 공모에 응모하는 단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일구고 있고 남을 돕는 단체를 도우려는 단체가 참 많구나'하며 큰 힘과 격려를 얻었습니다. 아쉬움과 필요함을 발견하고 우리 재단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에 사명감과 동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비영리 단체의 성장을 돕는 좋은 서비스로써 임팩트스펀이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팩트스펀을 통해 2014년 지원 단체 공모를 진행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이전 공모에 비해 2배 이상의 단체가 응모했습니다. 응모 숫자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질적인 부분입니다. 47개의 단체 중 1차 심사를 거쳐 5개의 단체를 선정,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5

온갖문제매거진 프로젝트 공모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사회혁신센터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과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와 교육 프로그램, 사회혁신 사례 연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이노베이션캠프36, 아이디어 플랫폼 웹사이트 오픈너(opener.or.kr), 온갖문제매거진 프로젝트, 소셜디자이너스쿨(SDS) 등이 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온갖문제매거진 프로젝트'는 우리를 둘러싼 일상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변화의 대안을 찾고, 이를 문화예술의 형태로 공유하는 시민들의 연구 작업이자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창조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모든 과정을 주도합니다. 결과물은 내용에 따라 글, 영상, 그림, 공연, 대담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속되어온 '온갖문제총서'의 세 번째 버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동그라미재단의 협력을 통해 임팩트스폰에서 '연구 주제'를 공모했습니다. 응모한 25개 주제 중에서 5개를 선정했고, 이 중 4팀이 현재 막바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획과 진행은 주제별 팀 단위로 운영되며 희망제작소에서는 회의비와 결과물제작비 그리고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기존 공공문화예술프로젝트에서 수동적 참여에 그쳤던 시민을 연구자이자 문화생산자로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혁신의 과정을 한층 더 풍성하고 흥미롭게 증진시킬 프로젝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프로젝트 중 '00의 아들딸로 살아가는 방법'은 독특한 직업의 부모를 둔 자녀들의 고충을 담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인데요, '독특한 직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제안자의

아버지이기도 한 '목사' 자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보다 조금 늦게 모인데다 모두가 처음 보는 사이여서 서먹서먹한 분위기는, 리더인 제안자까지 초기에 하차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참가자들의 의지로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끈끈한 팀워크를 보이며 재미있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떠오릅니다. 공모 진행 중에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ANIS)'이라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저희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대부분이 태국에 출장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팀원과 온라인으로 심사 의견을 나누고, 선정된 주제를 임팩트스폰에 포스팅하기 위해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으로 노트북을 들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도 '오픈너'라는 웹사이트를 런칭했습니다. 웹 서비스 하나 만든다는 것이 보기와는 달리 얼마나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것인지를 경험해봐서 그런지 임팩트스폰의 간결하면서도 꿈꾸는 디자인과 구성을 보며 담당자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스폰에는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늘 넘실거려서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도 드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모의 주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공모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피드백이 강화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나누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서울

하우투컴퍼니



하우투컴퍼니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멤버들이 모여,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재들이 꿈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IT 서비스, LEGO, 그림 그리기 등과 같은 재미있는 도구들을 활용하여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발현, 발전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션을 가진 하우투컴퍼니는 지난해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그라미재단의 후원을 받아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서울을 진행했습니다.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서울은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아시아의 지역 이벤트로, 아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소셜 벤처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 회사 운영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의 역할로 구성된 5개의 팀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교육, 환경, 지역사회, 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은 어두운 밤도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서울을 통해서 아주 예쁜 커플이 탄생한 것입니다. 선남선녀는 바로 이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커플은 행사가 끝난 후 다른 참가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소셜이노베이션캠프의 홍보 컨셉은 바로 건강한 이성을 연결해주는 장입니다. (웃음)

2013년 '소셜이노베이션캠프'는 서울을 포함하여 쿠알라룸푸르, 홍콩, 자카르타, 방콕 등 아시아 8개 도시에서 진행되었으며, 11월에는

각각의 지역 이벤트에서 수상한 팀들이 싱가포르에 모여 그들의 서비스를 공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자국의 사회 이슈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10~60대에 이르는 혁신가들과의 만남은 하우투컴퍼니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큰 영감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2014년에는 더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서울의 진행 과정을 임팩트스폰을 통해서 공유했는데, 아이디어를 모으고 행사가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지난 행사 자료를 다시 볼 때마다 순간순간이 떠올라 지금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임팩트스폰을 통해 진행된 8개 공모 프로젝트의 성과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공모프로젝트들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2회 소셜벤처파트너스서울 투자/협력처 모집

SVPS



소셜벤처파트너스서울(SVPS)은 비즈니스 사회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출자금(기부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사회적 인 기업을 지원 협력하는 곳입니다. 참여, 책임,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을 원칙으로 사회혁신가들의 좋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가치지향적인 투자활동을 통하여 더 따뜻하고 친절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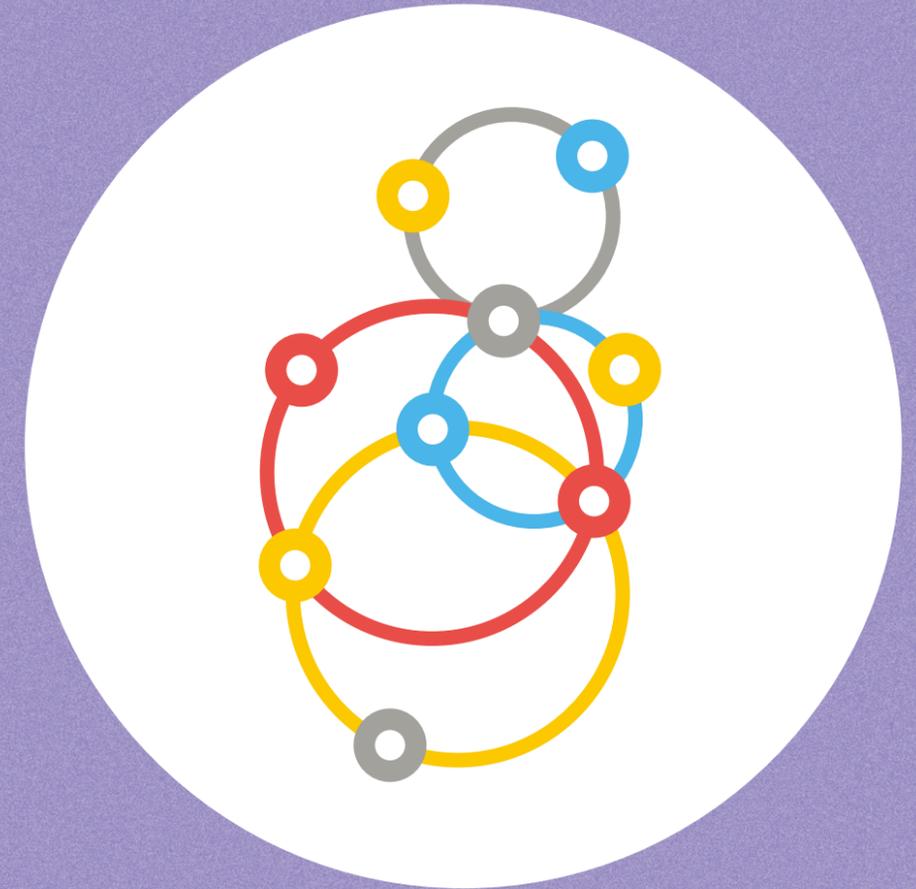
소셜벤처파트너스서울에서 진행하는 투자협력처 모집은 사회적인 과제 해결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소셜벤처팀을 선발하여 그들이 사회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전략, 비즈니스모델, 재무 계획, 마케팅, 단체설립, 비즈니스 스킬 등에 대해 어드바이스 하고 매뉴얼 작성에서부터 조직, 인적자원개발, 이사회 운영, 보조금이나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지원, IT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선발은 매년 10월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기업가정신, 사업모델, 공감성, 사회적 임팩트, SVPS와의 매칭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2012년 1팀, 2013년 3팀을 선발하였고 2014년에는 5팀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SVPS 투자협력처 모집에 선정된 세 팀은 모두 열정적이고 멋진 가치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 중 한 팀인 잉클영어교육협동조합 윤모린 대표의 경우 제1회 SVPS 투자협력처 모집에 지원하였지만 아쉽게 최종 선발되지 못하다가, 1년이 지난 이번 공모에 다시 도전하여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열정, 성의가 많은 파트너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SVPS 제2회 투자협력처 공모에는 총 37팀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최종 3팀을 선발하기 때문에 펠로우로 선정할 수 있는 팀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멋진 가치와 가능성을 가진 나머지 팀들과도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존 선발과정에 없던 네트워크 미팅을 기획하여 지원한 모든 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각 팀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가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 팀에 한해 2014년 담당 멘토를 지정해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팩트스폰을 통해 첫 해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자들이 SVPS 투자 협력처 공모를 알게 되었고 더 손쉽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모과정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SVPS 사무국 입장에서도 보다 수월한 방식으로 지원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 무척 유용했습니다. 동그라미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공모를 진행하는 공간도 지원받아 모든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SVPS 투자, 협력처 선발과정에서 '만약 임팩트스폰을 모르고 동그라미재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아직 임팩트스폰을 모르는 단체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단체가 이 플랫폼을 유용하게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발전되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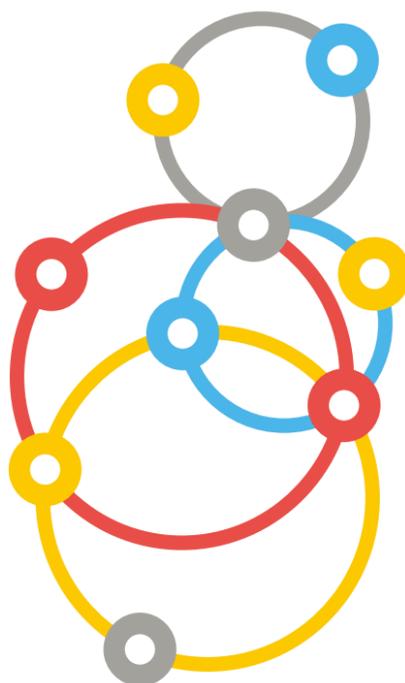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Local Challenge Project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기업 키우기 사업’ -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Local Challenge Project)’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로써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기업가와 기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확산을 지원하여 ‘지역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와 창업 지원의 ‘빈 곳’을 찾아서



동그라미재단은 자신의 ‘일’과 ‘꿈’을 개척해가는 기업가의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합니다. 그 첫 사업인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기업 키우기 프로
젝트로써 ‘일자리’와 ‘창업’ 문제에 있어 기회와 자원이 좀 더 필
요한 ‘지역(지방)’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의 로고는 대한민국 9개의
도를 상징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원들이
점차 확장되고 연결되어 큰 원을 이루는 모습은 지역 삶의 질 향
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격차 해소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나
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응원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는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
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 기업에게는 자
사의 이윤추구와 더불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무 역시 중요
합니다. 특히나 지역사회의 경우 지역 내 가치와 부를 순환시켜 내발
적 발전을 이끄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며 자립과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창
업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을 돕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와 사업 설명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묵묵
히 기업을 꾸려 온 기업가들의 열정과 그 기업들의 자립을 위해 꾸준
히 지원한 중간지원조직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서 함께 힘을 모으면 시작은 작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
하나 만들어나갈 수 있겠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는 ‘지역중심’, ‘사람중심’이라는 운영원
칙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발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공모와 단계별 심사

2013년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는 사업계획 공모로 시작했습니다. 응모한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자사의 성장 전략을 도출하고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 돌이 되는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서류심사, 대표자 면담 및 현장 실사를 통과한 기업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2차 심사에서는 전문가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동료 기업으로 구성된 지역심사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현황과 지역 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분들은 결국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심사단 평가에 50%라는 높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자립과 성장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실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6개월간 참여하게 됩니다. 소수정예를 선발하여 기업별 맞춤형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이 향후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영진단과 문제해결 실행

사업계획서에서 자가 진단 했던 성장전략과 문제점들을 전문가의 경영분야별 진단을 통해 재점검하고, 도약에 필요한 우선해결 과제를 실행하는 것에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업 역량강화 교육

기업의 성장은 결국 사람과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업 리더그룹(대표자, 임원진, 기획자)에 대한 역량강화와 구성원들에 대한 비전공유, 팀워크 증진 등의 조직 역량강화 교육이 병행됩니다.

네트워킹 지원

진단/실행/교육 등의 전 과정을 협업, 토론, 워크숍 형태로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형성되도록 운영합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 지역 모델 발굴



6개월간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기업별 수행결과와 변화의 모습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록 기업에는 짧을 수도 있는 6개월이지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도약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 무엇인가를 시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성 확보가 지역을 위한 기업들에게 큰 이슈입니다. 기업가의 열정과 기업의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되어 후속지원에 선정되는 모델사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는 지역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의 파일럿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이 발굴되어 지역 대표사례로 성장하고 지역 내에 뿌리내려 장기적으로 생태계 구축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모델케이스로서 타 지역으로 복제, 확산되고 후배기업들의 선례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여럿이 힘을 모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도 창업기업들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나갈 것입니다.





‘최종 기업을 선정하기까지’ - 사업설명회와 지역주민심사

전국 7개 권역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



2013년 8월 전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춘천, 전국 7개 권역에서 38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였습니다. 재단이 1년여 간 고민했던 지역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된 설명회만큼 기초연설도 지역에 맞게 다양한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재명 대표님, 김강수 대표님으로부터는 진솔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들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연구원의 조영복 원장님은 부산의 지역 사회 문제와 기업 지원에 대해, 카이스트경영대학원 장대철 교수님은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라준영 교수님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설명회에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질문으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각 지역 기업가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현장에서 쌓으신 노하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한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1차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통과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23일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심사단, 동료기업과 더불어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부산/울산, 광주, 대구, 전북, 전남, 대전, 제주 등 각 권역별로 지역 내 기업가와 중간 지원조직 실무자로 구성된 22명의 지역주민심사단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의 혁신과 변화를 꿈꾸는 이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별 통합지원기관과 지역심사단

도움을 주신 분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가 실행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역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창업, 기업, 지역 관련 전문가들이 있었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방곡곡의 지역을 위한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창업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아 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심사단으로도 활약해주셨습니다.

지역주민 심사단 (12개 권역 22명으로 구성)

2013년 10월 23일 참석자 기준

경기	공성빈	(주)크곶 대표
	장연실	사회적기업경기재단 CV본부 전략기획팀장
인천	정종기	두리지역복지센터 대표
	주순호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 사회적기업팀장
강원	이진천	(주)불내살림 대표
	김태호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팀장
충북	김경락	사회적기업 삶과환경 대표
	하재찬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지원국장
충남	김민숙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팀장
부산/울산	정신모	사회복지법인 로템복지재단 로템직업재활센터 대표
	김왕의	(사)사회적기업연구원 팀장
광주	김원준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표 광주권역사회적기업협의회장
	송의현	(사)광주NGO시민재단 광주광역시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팀장
대구	강현구	사회적기업 동구행복네트워크 대표
	박철훈	(사)커뮤니티와 경제 대구경북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전북	구형선	동그라미플러스 대표
전남	황현조	동신이향 대표
	신주환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전남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장
대전	조세종	민들레의료생협(사회적기업) 이사장
	김수진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팀장
제주	이우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녀의꿈 대표
	김승주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마을기업 팀장

박진영 팀장

대구/경북 (사)커뮤니티와 경제

커뮤니티와 경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사)커뮤니티와 경제는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 민간과 민간 사이에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지역의 일자리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가 재구축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자발적인 요청으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설명회를 유치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는데, 그 열정의 근원 및 해당 지역 기업들의 저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기업의 출발은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은 각 분야에서 지역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청년들의 참여가 열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여름은 뜨거운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및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기업이 해결해야 될 우선적 과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판로시장 개척과 사회적기업이 투자 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판로시장 개척은 착한소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같이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자본시장 조성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몸 담고 활동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입니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업종이 다양화되면서 지원조직의 인력과 역할이 사회적기업의 욕구에 따라가지 못할 때 여러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사회적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저희의 웃음도 늘어납니다. 퇴근길에 받는 사회적기업가의 감사 전화와, 가끔 같이 기뻐하는 소주 한 잔에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라는 제목처럼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일이 자원의 한계와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꾸준히 사회혁신을 해나가는 사회적기업에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확신하며 우리 사회에 기회가 많아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왕의 팀장

부산/울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연구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공익연구기관이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입니다. '참여와 나눔을 위한 행복한 연구'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친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컨설팅, 교육, 홍보, 전문학술지 발간, 프로보노 매칭,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 그 열정의 근원 및 해당 지역 기업들의 저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산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소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가고자 하는 착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업과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사업이 이러한 참여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해줄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많은 분들의 참석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기보다 상생과 공생을 위한 부산지역의 인식 개선과 정립이 그 열정의 근원이자 저력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및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산지역에는 건설한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판로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또

한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한계도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근원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몸담고 활동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먼저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연구원이라는 조직체의 일원으로 함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 뵙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저의 미천한 활동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줄곧 컨설팅을 받으시던 어느 기업의 대표께서 저희 연구원에 방문하셔서 감사의 눈물을 보인 것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마음이 저립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좀 더 활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중간지원기관들의 인력구조나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도 한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단체들을 발굴해 기업과 매칭 지원하는 등 지역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역 기업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한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더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김수진 팀장

대전 (사)풀뿌리사람들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사)풀뿌리사람들은 시민 스스로의 깨달음과 변화, 참여에 기초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협동과 나눔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00개의 마을주민조직, 100개의 사회적기업, 100개의 공익활동네트워크, 100인의 풀뿌리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에 기초한 대안공동체운동, 사회적경제운동을 열어가며 마을과 일터 속에서 믿음과 희망을 만듭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지역심사단에 참여하여 기업을 선정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마을에 기초하여 마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전문심사위원들뿐 아니라 현장에서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심사단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혁신기업의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및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정·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들의 경우 일정기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기업의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지원 중단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추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영세한 기업들이 경쟁이 아닌 기업체간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창출, 전략적인 마케팅 방안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지원이 아닌 지역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공동의 자립능력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몸담고 활동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지정·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정부 재정지원 없이도 지역발전을 목표로 혁신적 아이템을 가지고 성장하는 혁신기업 모두 사회적경제의 주체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 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스스로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자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기업의 대표나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체들을 스스로 돕고 성장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 또한 어려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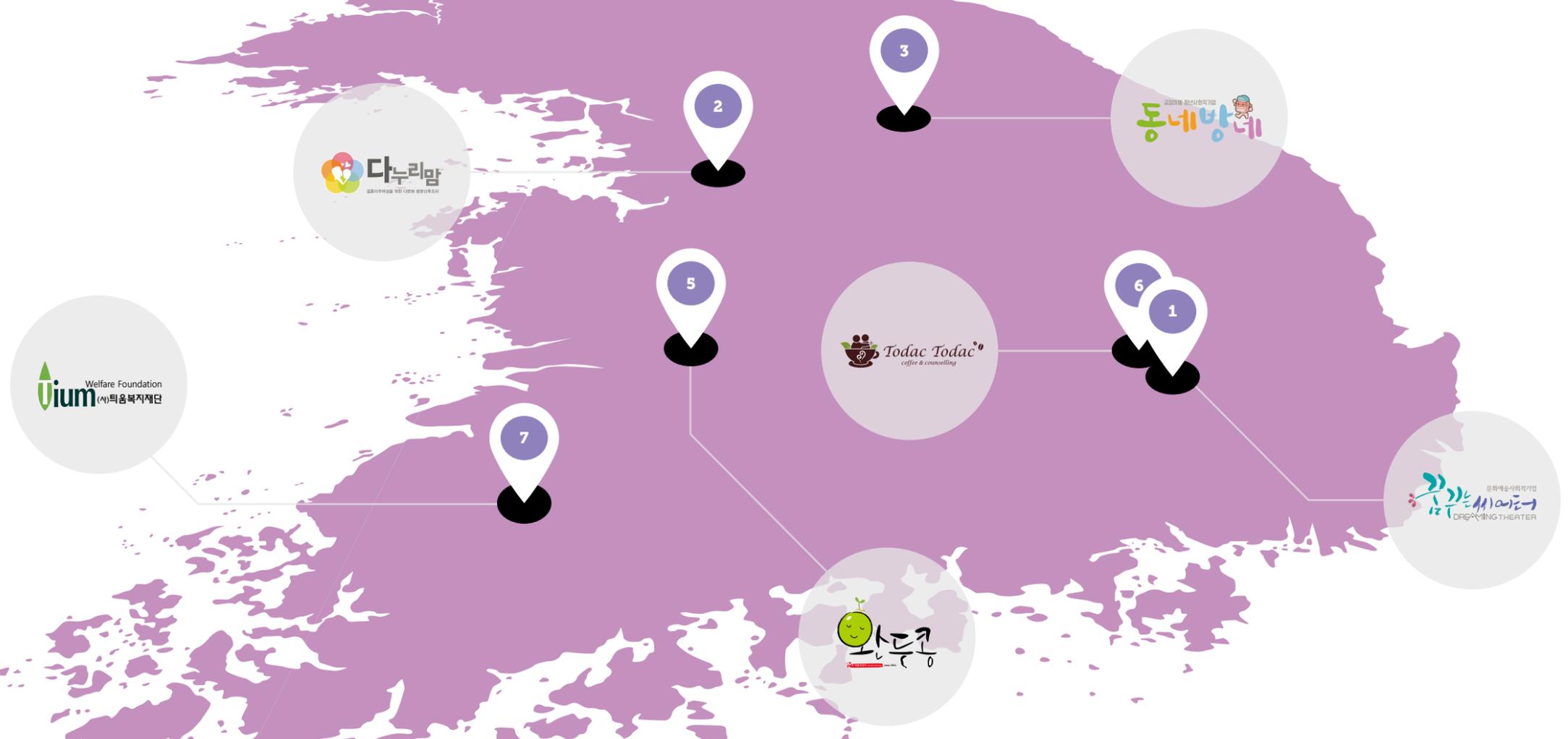
중복수혜를 피하면 좋겠는데,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나 민간 혹은 기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면 합니다. 오히려 외부지원 없이 기업을 운영해가는 영세한 기업 중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세한 기업을 선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제1기 7개의 파트너 기업

2013년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는 지역기여도, 지속가능성과 확장성, 창의성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총 7개의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안과 문제들을 비즈니스라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기는 제주, 광주, 대구, 완주, 춘천, 수원 등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업종이나 기업유형 면에서도 다양하게 선발했습니다.(가나다 순)



1

(주)몽꾸는씨어터
<http://www.lkumter.co.kr>
대표: 김강수
업종/업태: 공연기획제작, 극장대관
법적 형태: 사회적기업(주식회사)
사업 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연혁: 2009예비사회적기업 선정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의 생산-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예술가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 이탈을 막아 지역민과 취약계층에게 문화복지를 제공.
비즈니스모델: 예술가와 대중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예술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고 예술활동을 통한 수익의 사회적투자를 통해 지역, 예술, 사람의 가치를 높임.

2

(주)다누리맘(구 맘마미아)
<http://www.mammamia.or.kr>
대표: 오달아
업종/업태: 산후조리 서비스
법적 형태: 예비사회적기업(주식회사)
사업 지역: 경기도 수원시
연혁: 2011사업시작, 2013설립등기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다문화 인구가 밀집한 수원지역의 다문화 여성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이주 초기 출신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회에 통합되게 돕고자 함.
비즈니스모델: 다문화 여성을 전문 산후관리사로 양성, 같은 국적의 다문화 산모에게 매칭하여 각 문화별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3

동네방네
<http://www.dnbnttravel.com>
대표: 조한솔
업종/업태: 공정여행, 게스트하우스
법적 형태: 사회적기업
사업 지역: 강원도 춘천시
연혁: 2011사업시작, 2012설립등기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지속가능한 여행 콘텐츠 개발·운영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원도심 등 공동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비즈니스모델: 춘천 원도심 내에 위치한 약 28개의 오래된 여관/여인숙 등의 숙박 시설을 최근 유행하고 있는 지역융합형 게스트하우스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운영.

4

무릉외갓집영농조합법인
<http://www.murungfarm.co.kr>
대표: 고희창
업종/업태: 농산물 판매
법적 형태: 영농조합법인
사업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연혁: 2011설립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합리적인 농산물 유통시스템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농민들에게는 좋은 가격에 판매 창구와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제공하고 도시 시민들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장터 및 체험 공간을 제공.
비즈니스모델: 제주도를 대표하는 농수산물 회원제 배송 프로그램(꾸러미서비스)을 운영.

5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http://www.wandookong.kr>
대표: 이용규
업종/업태: 간행물, 홍보물, 광고
법적 형태: (생산자)협동조합
사업 지역: 전라북도 완주군
연혁: 2012완주예비공동체 선정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지역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함.
비즈니스모델: 마을사무장, 귀농·귀촌인 등 지역주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매월 마을소식지 '완두콩'을 발행하고, 완두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타 기관 소식지 대행, 영상제작, 출판 및 언론학교 등 부대사업을 운영.

6

토닥토닥협동조합
<http://cafe.naver.com/todac>
대표: 이영희
업종/업태: 심리상담, 커피전문점
법적 형태: (직원)협동조합
사업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연혁: 2011사업시작, 2013조합등기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지역민들의 각종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에 기인한 가정 붕괴, 청소년 이탈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적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비즈니스모델: 문턱을 낮춘 카페라는 공간에서 값싸고 질 높은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마음발을 돌보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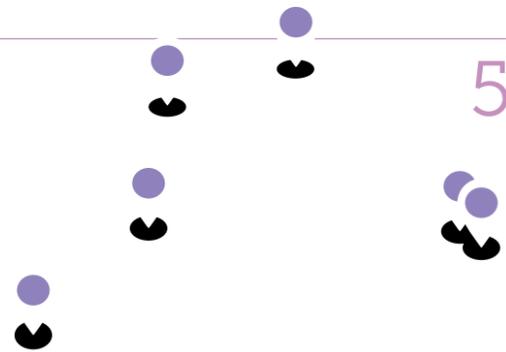
(사)티움복지재단
<http://www.tiumbokji.com>
대표: 안병규
업종/업태: 제과제조(과자, 빵, 떡)
법적 형태: 사회적기업(사단법인)
사업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연혁: 2009설립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일반인과 공존하며 장애인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비즈니스모델: 100% 우리밀과 친환경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여 장애인과 함께 빵, 쿠키, 케익을 만들어 판매해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4



7개 기업 소개와 선정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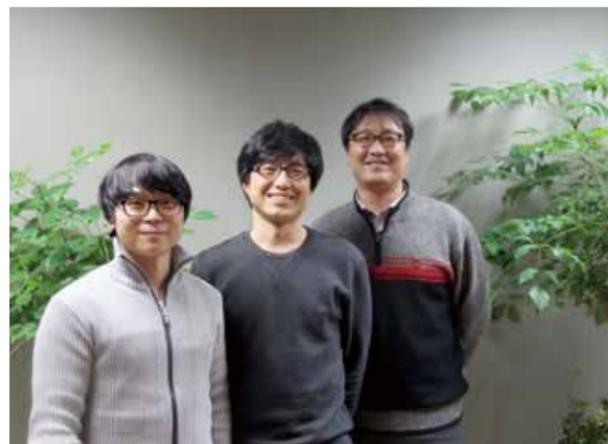


Partner 01



(주)꿈꾸는씨어터

“문화예술사회적기업 꿈꾸는씨어터는 대구를 거점으로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공간을 마련하고자 오랜 시간 개관을 준비했고, 개관 후 다양한 예술가들과 꾸준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꾸는씨어터는 동그라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체 브랜드를 내걸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큰 공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 문화예술인력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 발굴 및 성장
- 지역 문화예술 가치 확대를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 지역 예술인들의 생산 네트워크 제공
- 공연 수익의 지역순환비중의 확대

개선희망사항

- 작품 개발 투자금 확보
- 자체 개발 상품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판매망 확대
- 마케팅을 위한 고객DB구축과 활용방안 모색

Partner 02



(주)다누리맘(구 맘마미아)

“다문화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누리맘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출산 후 산후조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다누리맘을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다문화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 다문화 여성 일자리 창출
- 다문화 산모의 출산, 보육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개선희망사항

- 인건비 과다 수익구조 개선
- 다문화가정의 낮은 구매력으로 인한 수요 저조 문제 개선
- 기업 운영자원(인적자원, 자본, 설비 등) 부족 문제 해결

Partner 03



동네방네

“동네방네는 강원도 춘천 지역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해결하고자 전통시장 내 여행자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에 오래 방치된 숙박시설들을 활성화하고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게스트하우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라 미흡하지만 6개월간 진행하는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 춘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 새로운 소비계층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

개선희망사항

- 춘천 지역커뮤니티와의 융합
- 숙박업 운영 경험부족 문제 해결
- 관광 콘텐츠 지속생산 및 유통



무릉외갓집영농조합법인

“무릉외갓집은 제주도 내 농산물 꾸러미사업을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꾸러미가 더욱 질 좋은 꾸러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중 유일한 농산물 프로젝트로서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 지역 농가 소득 향상 및 직거래 유통 채널 확보
- 도시 소비자와 농촌 간 교류 확대 및 제철 농산물 제공
- 제주도 내 농산물 판매 활성화

개선희망사항

- 농산물 매입 및 판매 채널 확대
- 지역 내 소비 증대
- 회원 프로그램을 통한 조합원들의 소속감 및 참여 동기 증대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완두콩은 완주지역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월간 마을 소식지입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6개월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 이웃 소식의 공유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 복원
- 지역 공동체 홍보 마케팅 창구 확대
- 지역 자산 기록 보존 전승
- 지역의제 발굴 및 해설, 확대

개선희망사항

-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영역 확대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운영 실무 학습
- 사업 진행을 위한 제작시스템 구축



토닥토닥협동조합

“토닥토닥은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값싸고 친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산 두 지점을 운영 중이며, 전 연령층이 마음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동그라미재단에 감사드리며,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 심리상담을 통한 각계각층의 정신적 문제 해소
- 기존 심리상담 장벽(가격, 외부시선, 무관심) 해소

개선희망사항

- 유능한 전문 인력(심리상담사) 확보
- 카페 사업 경쟁력 강화
-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사)티움복지재단

“티움복지재단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자립생활사업, 가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0여 명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의 비중이 낮지만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재단 성장과 새로운 판로 개척을 이루어,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재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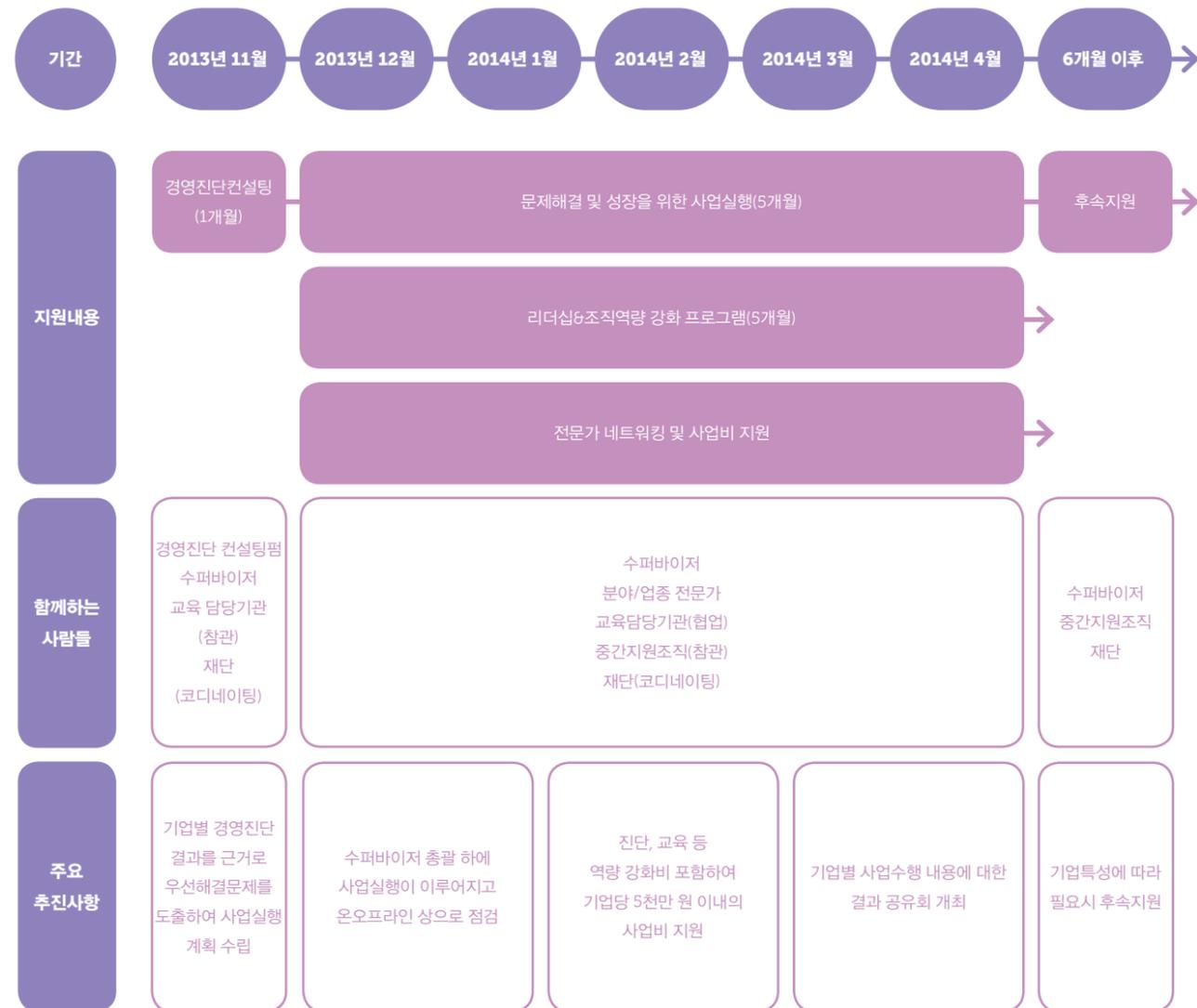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증대

개선희망사항

- 생산 설비투자 및 상품 디자인 개선
- 신규 제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직영 매장 신설



로컬챌린지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소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재 최종 선발기업 7곳에는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실행을 위한 수퍼바이저, 리더십&조직역량 강화교육, 사업비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수정예의 기업을 선정하여 단기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인 만큼 전문성으로 무장한 여러 파트너들이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쏟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현재 첫 단계인 경영진단 컨설팅이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와 각 기업별 수퍼바이저의 조언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을 위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생 가능한 지역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5월 중순까지 선정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의 구조를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을 발굴, 육성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기업들이 대표 모델로 성장하여 선배 기업으로서 생태계 구축의 중심점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모델케이스 발굴과 더불어 장기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별 자생 가능한 창업 및 기업 생태계 구축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 해당 지역 지원기관/단체 및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중반과 후반에 지역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활용 내용 공유가 진행될 예정이고,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2기부터는 지역과 좀 더 밀착되어 함께 모델케이스를 발굴하고 지역 내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진화하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키오프 워크숍

선정기업과 수퍼바이저의 첫 만남부터 기업의 발전 방향을 놓고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참여 현장

리더십&조직역량 강화교육 시작

1차 교육은 사회적 상상력 개발과 비전&미션 수립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5회에 걸쳐서 기업 대표 및 임원진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실습과 워크숍 형식으로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2013년
12월 20일



기업별 경영진단 컨설팅

기업 경영 현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3년
11~12월



현재 사업실행을 위한 수퍼바이징 진행 중

기업 도약에 필요한 우선해결과제 및 성장전략 실행을 위해 기업별 담당 수퍼바이저가 투입되었습니다. 수퍼바이저는 멘토, 컨설턴트, 네트워크로서 프로젝트 기간 동안 기업의 전략 수립과 실행, 목표 달성을 돕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차 교육을 듣고 난 후, 교육받은 내용을 접목시켜 보기로 했다. 배운 것을 조금씩 틈틈이 맞게 고쳐나가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믿는다. 이제 새로운 첫 시작이니, 이를 계기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겠다!

- 틈틈이재단 김규환 사무국장

경영진단, 컨설팅 등등 사업을 하면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컨설팅사 관계자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나누었습니다.

- 동네방네 조한솔 대표

SNS에 남긴 후기들

초심으로 돌아가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열심히 회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회적기업 꿈꾸는씨어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가치는?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가다듬고 달리기 위한 기본이겠지요.

- 꿈꾸는씨어터 김언중 이사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이제껏 어떤 경영자문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이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 토닥토닥협동조합 이영희 대표

역량강화 워크숍 1차 교육. 사람을 설득하는 다양한 방식, 소셜픽션 워크숍의 체험식 강의, 재밌다!

- 완두콩 이용규 대표

두통한 경영진단서를 받고 앞으로 해나갈 일이 많지만 방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무릉외갓집 홍창욱 실장

수퍼바이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다누리맘 한만형 부대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바란다

지역 기업을 위해 전문가들이 뭉쳤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전문가들!



이종익 상무이사

딜로이트컨설팅



서정헌 대표

(주)세움넷



김동헌 대표

에피투스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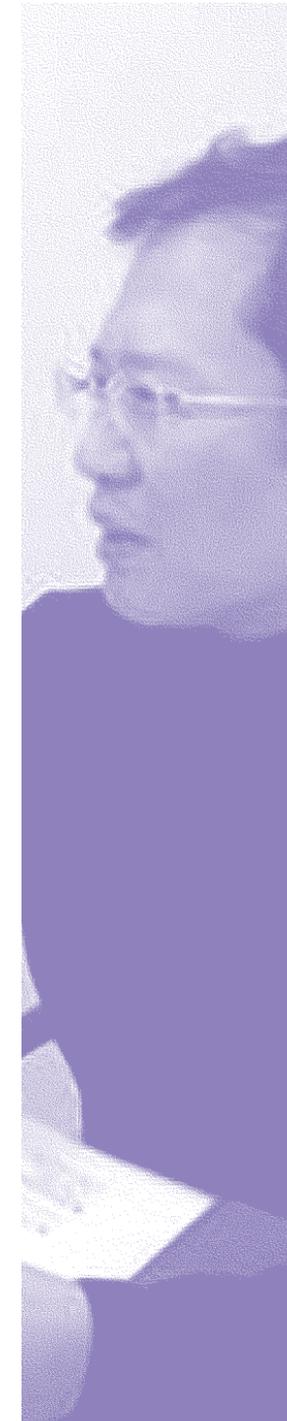


정상훈 전문위원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이종익 상무이사

딜로이트컨설팅



선정된 지역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및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역사가 짧아 정확한 비전과 목표, 기업 가치를 확정하는 것과 이에 따른 조직, 자금, 운영 등의 경영 자원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로컬 시장의 한계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와 적정 매출 달성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간략한 본인 소개와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저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기업리스크서비스본부에서 리스크에 기반한 컨설팅, 진단,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객은 글로벌 다국적 회사와 국내 대기업이 주대상입니다. 제가 프로보노(Pro-bono) 활동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영진단, 경영 개선컨설팅, 지원심사 등의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면서 재단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로 인하여 대상 기업들이 건강히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단기적인 지표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체력과 건강상태가 좋아졌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모델과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에 좀 더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컨설팅 및 슈퍼바이징을 진행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사회적조직이나 지역경제조직을 지원하고 대출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은 많지만, 로컬 챌린지처럼 특정 지역에 기반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증대에 직접 이바지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단발성의 지원, 업무진단, 컨설팅이 아니라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지역 기업, 재단, 슈퍼바이저, 컨설턴트가 팀을 이루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아주 독창적이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매우 좋은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헌 대표

(주)세움넷



간략한 본인 소개와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창업컨설팅 전문 회사 (주)세움넷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정헌이라고 합니다. 1997년부터 창업컨설팅 회사를 운영했으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2008년 5월부터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재단의 상임이사 출신이신 윤정숙님께서 동그라미재단 출범 초기에 이사님으로 참여하시면서 저에게 재단 활동 참여를 권유하셨습니다. 이를 수락하여 동그라미재단의 자문위원을 맡게 되었고 이후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수퍼바이징을 진행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우선 수도권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이 특이하게 여겨졌고 1년 이상 꽤 오랜 시간 국내 창업 및 경영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던 재단의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하여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점이 현재까지도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른 지원 기관의 일들에서도 느꼈듯 이러한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상 기업 선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정된 지역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및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사회적기업들이 그렇듯 가장 큰 어려움이자 지원이 시급한 부분은 비즈니스모델 구축과 사업의 객관적 자기 평가라고 봅니다. 사회적, 공익적 목적이 앞선 나머지 기업이 가장 우선 추구해야 할 영리구조 확보가 배제된다는 문제이지요.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업에 대한 평가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감, 사명감 역시 지나칠 경우 고집이 됩니다. 컨설턴트의 역할 역시 자신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동그라미재단에게는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당부 드립니다. 대부분의 지원 기관들이 초기에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만 경험이 쌓이게 되면 스스로의 판단 기준에 맞춰 사업을 실행해나가는 경우를 아주 자주 보았습니다. 컨설턴트의 역량을 최대한 신뢰하시고 그것을 사업자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자들에게는 겸손함과 절실함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도움은 엄청난 기회와 혜택 속에 있는 것이라는 점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대표

에피투스컨설팅



선정된 지역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및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으로서의 성공 요인과 운영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성장 방안을 찾는 것과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셜 미션(어떤 사회적 가치를 누구에게 왜 제공하는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에 비효율성과 혼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재단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여타의 지원 단체와는 다른, 동그라미재단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략한 본인 소개와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공인회계사, 컨설턴트, 창업, 그리고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재무, 생산 및 물류, 전략, 마케팅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이노베이션에 특화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는 희망제작소의 정상훈 센터장님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수퍼바이징을 진행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직 뚜렷이 공론화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따라서 잠재적 사회적 가치가 큰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선정 기업들이 진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어서 더욱 열심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재단의 세심한 관리도 많은 격려가 됩니다.

정상훈 전문위원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간략한 본인 소개와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전문위원 정상훈
입니다. 2013년 11월까지 희망제작소 사회적경
제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지금은 사회혁신공간
there 사무처장과 서울사회적경제인재육성기획
단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일들을 해오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와 환경
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와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노력은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사
회적기업 롤모델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
젝트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희
망제작소 사회적경제 센터의 역량과 노하우를 바
탕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조직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기업의 발전단계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지역적 특성도 다른데다, 기존의 지식전달형 교육
과 달리 체험형 교육이 많아서 기업가나 차세대
리더분들의 참여도가 어떨지 걱정이 조금 있었습
니다. 다행히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여러 가
지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희망제작
소에서는 단순 교육보다 기업별로 고민 과제를 함
께 나누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급적 많이 가지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테마인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 미션 공유 작업까지 잘
진행되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
니다.

선정된 지역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및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가와 차세
대 리더의 리더십과 역량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별 기업의 현황상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
는 공통의 문제인 커뮤니티의 부재, 소셜미션 명
확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 부재와 내부 조직
역량 강화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물적자원이나
인프라가 취약한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
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혁신가로서의 리더십
을 키우는 것을 우선으로 기타 경영 이슈를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지역 공동체 복원이라는 소셜미션을 수행하
면서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혁신기
업은 다른 소셜미션 수행기업보다도 훨씬 장기적
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으로 사람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노력 또한 일관된 철학 하에 오랜 시
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어서 장기적 정책 방향 속
에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선정은 엄격히 하되, 지원은 장기적으로 기업
의 필요를 최대한 고려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바로미터는 지역 혁신 기업
과 사회적기업가가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달렸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
공하고자 하는 동그라미재단의 미션이 꼭 실현되
기를 기원합니다.



1. 지원기업대표 및 실무자:
최소 주 1회 진행사항 타임라인에 작성

2. 슈퍼바이저 :
최소 주 1회 코멘트 타임라인에 작성
월간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월1회)

유기관 및 컨설팅펌 담당자 참여 독려



동그라미재단 살림살이

Financial Statements



동그라미재단 예산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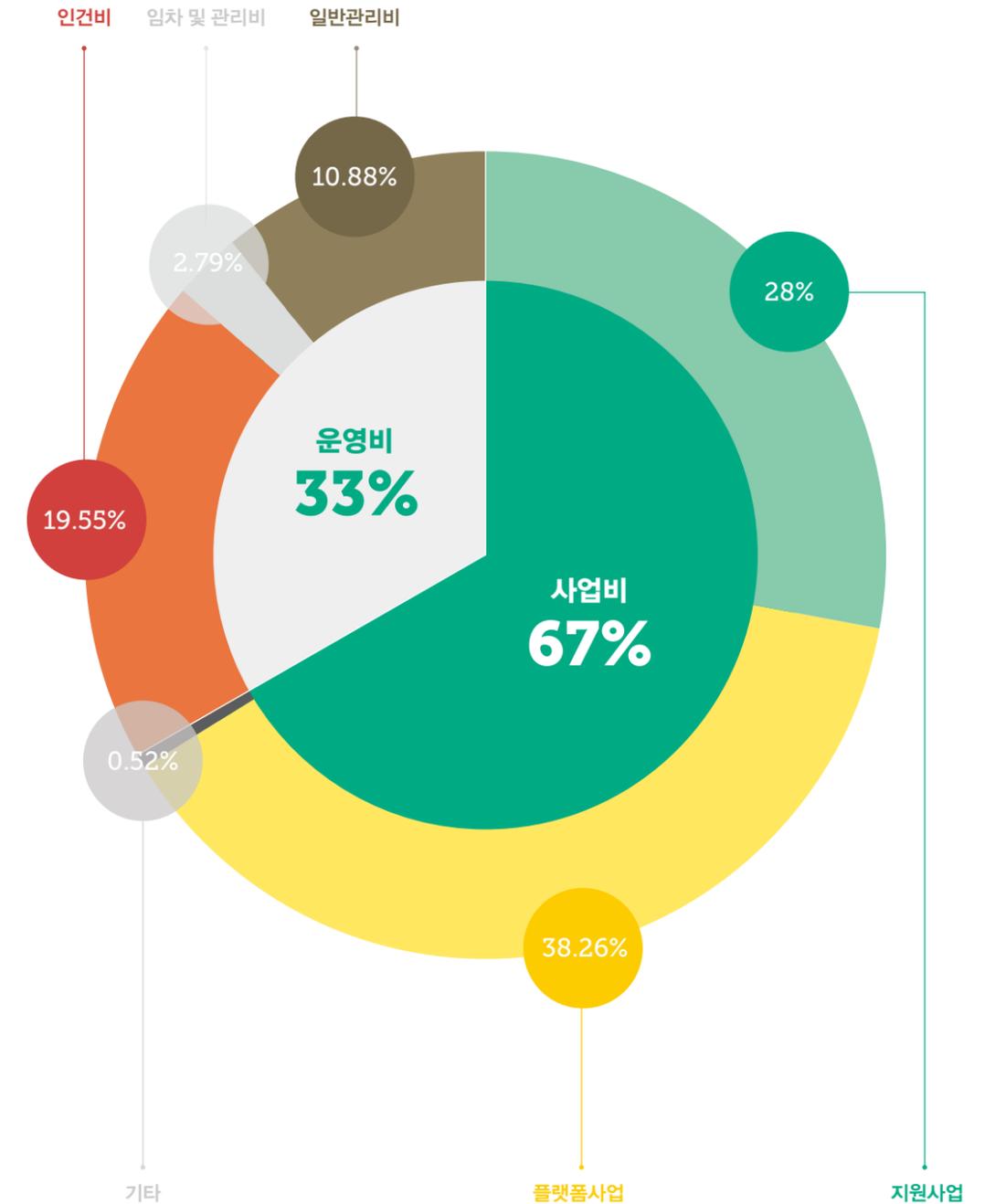
비용 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백분율
사업비	지원사업	492,934,740	28.00%
	플랫폼사업	673,401,311	38.26%
	기타	9,093,050	0.52%
운영비	인건비	344,126,417	19.55%
	임차및관리비	49,093,095	2.79%
	일반관리비	191,536,020	10.88%
합계		1,760,184,633	100%

2013 0101 - 1231



비용 구성





2013년을 마무리하며

지난 한 해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고
생각을 맞대었던 많은 파트너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고, 앞으로 계속 다듬어 나가야겠지만
파일럿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세 개의 프로젝트가
어엿한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혜를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지지해 주신 파트너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2014년엔 그 든든한 지지 안에
동그라미재단의 비전인 "변화의 시작, 기회와 나눔의 네트워크"라는
소망을 담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참여와 활동이 기회와 나눔이 필요한 곳에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적용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기회격차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기금이 쓰이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파트너들과 서로 응원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작은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
긍정적인 혁신을 이뤄내는 동그라미재단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재단 상임이사
김소라 드림



동그라미재단(주) 발행수재단) 연례보고서
CIRCLE STORY 2013

www.thecircle.or.kr

